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제8차 회의

보고일자	2026. 8. 13.	보고 사항
공개여부	공개	

AI시대 미래교육방향 국민의견수렴 분석 결과

제 출 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제출일자	2026. 8. 13.

AI시대 미래교육방향 국민의견수렴 분석 결과

I 의견수렴 및 분석 개요

□ 추진배경

-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미래교육 방향 설정을 위해 'AI시대, 우리의 교육방향'을 주제로 의견수렴 추진
- AI시대의 역량과 교육, 직업세계로의 연계에 대한 질문을 제시하고, 온·오프라인 토론회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

< 핵심 질문 >

- ① 인공지능과 구별되는 인간의 고유한 영역과 역량은 무엇인가?
- ② 인공지능시대 학교의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 ③ 학습과 직업의 연결사다리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는가?

□ 분석 대상

구분	국민참여위원회 토론회 제안의견	온라인 의견수렴(국민의견플랫폼)
의견수렴기간	(오프라인) 6.18. (온라인) 6.19., 6.20	6.22. ~ 7.10.
응답규모 ¹⁾	총 689건	총 928건
분석기준 (배경변인)	학생·청년, 학부모, 교육관계자, 일반국민	10~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²⁾

질문	국민참여위원회 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SNS댓글 ³⁾	계
① AI시대의 인간고유 역량	175건	300건	342건	817건(31%)
② AI시대의 교육과정, 수업, 평가	266건	426건	580건	1,272건(48.2%)
③ 학습과 직업의 연결사다리	248건	202건	99건	549건(20.8%)
계	689건	928건	1,021건	2,638건(100.0%)

1) 응답 규모는 배경변인(직능/연령대) 미상을 제외한 분석 자료 기준

2) 국민의견플랫폼 의견은 작성자의 연령만 확인 가능

3) 유튜브 등 SNS 플랫폼에서의 댓글 중 의견이 명확한 1,021개를 추출하여 의견분석결과에 대한 검증 용도로 활용

□ 의견 분포

- (국민참여위원회 토론회) 교육관계자의 의견이 40.3%로 가장 많으며, 학부모, 학생·청년, 일반국민이 18~21%로 비슷한 규모

구분	학생·청년	학부모	교육관계자	일반국민	계
①AI시대의 인간고유 역량	26건(14.9%)	35건(20.0%)	72건(41.1%)	42건(24.0%)	175건(100%)
②AI시대의 교육과정, 수업, 평가	62건(23.3%)	48건(18.0%)	105건(39.5%)	51건(19.2%)	266건(100%)
③학습과 직업의 연결사다리	52건(21.0%)	42건(16.9%)	101건(40.7%)	53건(21.4%)	248건(100%)
계	140건(20.3%)	125건(18.1%)	278건(40.3%)	146건(21.2%)	689건(100%)

- (온라인 의견수렴) 30대(28.8%)와 40대(30.7%)가 의견을 많이 제안, 60대 이상은 8.9%로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

구분	10~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①AI시대의 인간고유 역량	39건(13.0%)	95건(31.7%)	91건(30.3%)	51건(17.0%)	24건(8.0%)	300건(100%)
②AI시대의 교육과정, 수업, 평가	57건(13.4%)	112건(26.3%)	142건(33.3%)	75건(17.6%)	40건(9.4%)	426건(100%)
③학습과 직업의 연결사다리	30건(14.9%)	60건(29.7%)	52건(25.7%)	41건(20.3%)	19건(9.4%)	202건(100%)
계	126건(13.6%)	267건(28.8%)	285건(30.7%)	167건(18.0%)	83건(8.9%)	928건(100%)

※ (참고) 분석 방법

- ❖ 국가교육발전연구센터(KEDI)에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과정에서 교육학 전문가(4명)와 방법론 전문가(2명)의 자문 수행
 - 보고서 내용은 전문가의 연구 결과를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여 제시
- ❖ 구조적 토픽모델 분석(Structural Topic Model)
 - (분석목적) 어떤 내용이 응답 되었는지, 그 내용을 어떤 집단이 더 많이 응답했는지를 분석하여 핵심 주제와 키워드 도출
 - (분석절차) ① 토론회와 온라인 의견수렴에서 각각 논의된 주제를 대표하는 단어를 추리고, 그 중 최빈 단어와 변별력이 큰 단어 등을 근거로 주제를 도출
② 토론회와 온라인 의견수렴에서 얻어진 주제를 통합하여 분석

II

미래교육방향에 대한 의견 분석 결과

1 시와 구별되는 인간의 고유한 영역과 역량은 무엇인가?

○ 국민참여위원회 토론회 결과 분석

-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164건을 분석하여 7개의 주요의견을 도출
- 주요 의견이 세대에 따라 나뉘는 양상 : 청년세대는 책임감, 자발적 행동력에 대한 의견을, 기성세대(교육관계자, 학부모, 일반국민)는 공감·배려, 연대와 협업을 상대적으로 강조

< 국민참여위원회 토론회 주요의견 분석 >

주요의견	학생·청년	학부모	교육관계자	일반국민	계
①실패와 갈등 경험 기반의 지혜와 회복탄력성	4건(18.2%)	5건(22.7%)	7건(31.8%)	6건(27.3%)	22건(100%)
②창의와 윤리 기반의 자발적 행동력	6건(42.9%)	0건(0.0%)	6건(42.9%)	2건(14.3%)	14건(100%)
③공감과 배려	1건(3.8%)	7건(26.9%)	8건(30.8%)	10건(38.5%)	26건(100%)
④연대와 협업	0건(0.0%)	3건(15.0%)	11건(55.0%)	6건(30.0%)	20건(100%)
⑤가치 판단 기반의 책임감	13건(41.9%)	4건(12.9%)	11건(35.5%)	3건(9.7%)	31건(100%)
⑥정서와 성찰 기반의 오류 인지	1건(3.0%)	10건(30.3%)	16건(48.5%)	6건(18.2%)	33건(100%)
⑦AI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인간 고유의 주체성	1건(5.6%)	4건(22.2%)	8건(44.4%)	5건(27.8%)	18건(100%)
계	26건(15.9%)	33건(20.1%)	67건(40.9%)	38건(23.2%)	164건(100%)

○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 분석

- 온라인 의견 298건을 분석하여 6개의 주요의견 도출
- 연령대 간 의견 편차가 적어, 인간 고유의 역량으로 ‘공감·창의·협력’이 세대와 관계없이 일정부분 공유되고 있다고 해석

< 온라인 의견수렴 주요의견 분석4) >

주요의견	10~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계
①비판적 사고 기반 : 가치 판단과 책임	2건(6.9%)	10건(34.5%)	13건(44.8%)	3건(10.3%)	1건(3.4%)	29건(100%)
②인간 고유 역량 : 공감, 창의력, 협력	13건(13.5%)	30건(31.3%)	27건(28.1%)	18건(18.8%)	8건(8.3%)	96건(100%)
③실존적 성찰 : 공감 기반 연대	7건(11.7%)	24건(40.0%)	22건(36.7%)	4건(6.7%)	3건(5.0%)	60건(100%)
④실패와 재도전 : 회복 탄력성과 삶의 의미 구성	7건(28.0%)	5건(20.0%)	4건(16.0%)	7건(28.0%)	2건(8.0%)	25건(100%)
⑤일상 속 인간다움 : 인성, 위로, 관계	4건(8.2%)	15건(30.6%)	15건(30.6%)	10건(20.4%)	5건(10.2%)	49건(100%)
⑥국가 교육체제 및 정책 개편	6건(15.4%)	9건(23.1%)	10건(25.6%)	9건(23.1%)	5건(12.8%)	39건(100%)
계	39건(13.1%)	95건(31.9%)	91건(30.5%)	51건(17.1%)	22건(7.4%)	298건(100%)

○ 토론회 및 온라인 의견수렴 종합분석

- 토론회 주요의견(7개)과 온라인 주요의견(6개)를 겹치는 영역 중심으로 종합

< 종합분석의견 >

토론회 주요의견	온라인 주요의견	종합의견	
공감과 배려, 연대 (46건, 28.0%)	공감과 협력 (156건, 54.0%)	→ ①공감하고 협력하는 힘 (202건, 43.7%)	공감·배려와 연대·협력
가치 판단 기반의 책임감 (31건, 18.9%)	비판적 사고 기반: 가치 판단과 책임 (29건, 9.7%)	→ ②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힘 (60건, 13.0%)	비판적 사고 기반의 가치 판단과 책임감
실패와 갈등 경험 기반의 지혜와 회복탄력성 (22건, 13.4%)	실패와 재도전: 회복탄력성과 삶의 의미 구성 (25건, 8.4%)	→ ③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힘 (47건, 10.2%)	실패와 갈등 경험 기반의 지혜·회복탄력성과 재도전을 통한 삶의 의미 구성

4) 300건 중 낱말이 3개가 안 되는 짧은 응답 2건을 제외한 298건 분석

- (①공감하고 협력하는 힘) 인간이 갖는 감정과 거기서 나오는 공감·협력 같은 관계의 덕목을 인간만의 영역으로 보는 의견. 이러한 덕목을 기르기 위해 학교와 평가의 큰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

"AI는 공감, 배려를 흉내낼 수 있을 뿐이며
인성 교육에는 사람이 필요하다"

- (②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힘) 무엇이 가치 있는지 판단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태도, AI가 내놓은 결과를 따져 보고 그 사용에 책임지는 힘을 의미

"AI는 지식과 답은 빨리 주지만, 그릇의 책임은지지 않으며
무엇을 물을지 정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건 사람의 몫"

- (③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힘) 실패와 갈등을 겪으며 길러지는 힘, 다시 일어서는 힘이 자주 언급됐고, 자기 정체성과 주체성 언급

"AI는 실패에 좌절하고 다시 도전하는 정서적 배움을 하지 못한다"

< 종합의견 관련 SNS 댓글 >

- 공감하고 협력하는 힘 : "아이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경쟁보다 협력을 중시하는 수업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페이스북)
-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힘 :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를수록 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인간의 도덕적 판단력이 핵심 능력이 됩니다." (인스타그램)
-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힘 : "학생들이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꼭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유튜브)

2 AI시대 학교의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 국민참여위원회 토론회 결과 분석

- 국민참여위원회 토론회 의견 263건⁵⁾을 분석하여 7개 주요의견 도출
- 교육과정과 평가에 대한 의견이 많았으며, 학생과 교육관계자는 공정성을 확보한 평가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상대적으로 많이 제기

5) 분석대상 266건 중 낱말이 3개가 안 되는 짧은 응답 3건을 제외한 263건 분석

< 국민참여위원회 토론회 주요의견 분석 >

주요의견	학생·청년	학부모	교육관계자	일반국민	계
①대면·토론 교육의 중요성 및 신중한 AI 전환	10건(33.3%)	7건(23.3%)	8건(26.7%)	5건(16.7%)	30건(100%)
②AI 시대의 사유 능력과 교육철학의 재정립	8건(25.8%)	1건(3.2%)	15건(48.4%)	7건(22.6%)	31건(100%)
③기초·분별력과 올바른 AI 활용 교육	8건(15.4%)	13건(25.0%)	15건(28.8%)	16건(30.8%)	52건(100%)
④인지를 넘어 사회·정서를 포괄한 공동체 중심 교육	8건(19.5%)	5건(12.2%)	22건(53.7%)	6건(14.6%)	41건(100%)
⑤교과 재구조화 : AI 대체 불가 영역 중심 개편	8건(22.9%)	7건(20.0%)	15건(42.9%)	5건(14.3%)	35건(100%)
⑥평가·대입 체계 혁신 : 절대평가와 프로젝트학습	7건(18.9%)	8건(21.6%)	15건(40.5%)	7건(18.9%)	37건(100%)
⑦평가 준거의 전환 : 속도와 정답에서 사고과정으로	13건(35.1%)	6건(16.2%)	14건(37.8%)	4건(10.8%)	37건(100%)
계	62건(23.6%)	47건(17.9%)	104건(39.5%)	50건(19.0%)	263건(100%)

○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 분석

- 온라인 의견 426건을 분석하여 9개의 주요의견 도출
- 창의력·문제해결력·공감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융합형 교육에 대한 답변(26%)이 가장 많았으며, 서술과 토론 중심의 평가로의 전환에 대한 의견이 30대와 40대에서 높게 도출

< 온라인 의견수렴 주요의견 분석 >

주요의견	10~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계
①AI를 수단화하는 인간 주체성 중심 교육	5건(8.9%)	13건(23.2%)	20건(35.7%)	15건(26.8%)	3건(5.4%)	56건(100%)
②생명·실존 기반의 인간 고유성과 윤리 교육	3건(13.0%)	7건(30.4%)	9건(39.1%)	0건(0.0%)	4건(17.4%)	23건(100%)
③자체적 판단력과 사유 중심 교육	10건(25.6%)	10건(25.6%)	9건(23.1%)	7건(17.9%)	3건(7.7%)	39건(100%)
④창의력과 문제해결력, 공감능력 중심의 융합형 교육	12건(10.9%)	37건(33.6%)	33건(30.0%)	17건(15.5%)	11건(10.0%)	110건(100%)

⑤AI·정보 리터러시와 비판적 사고력 함양 교육	1건(3.6%)	10건(35.7%)	8건(28.6%)	5건(17.9%)	4건(14.3%)	28건(100%)
⑥정답 찾기에서 서술과 토론 중심의 평가로의 전환	10건(14.3%)	21건(30.0%)	21건(30.0%)	8건(11.4%)	10건(14.3%)	70건(100%)
⑦서열화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의 입시 개편	4건(12.9%)	5건(16.1%)	10건(32.3%)	9건(29.0%)	3건(9.7%)	31건(100%)
⑧AI를 활용한 학생 개별 맞춤 교육	6건(30.0%)	3건(15.0%)	7건(35.0%)	3건(15.0%)	1건(5.0%)	20건(100%)
⑨기타 : 과거 학교 교육 경험 관련 의견	6건(12.2%)	6건(12.2%)	25건(51.0%)	11건(22.4%)	1건(2.0%)	49건(100%)
계	57건(13.4%)	112건(26.3%)	142건(33.3%)	75건(17.6%)	40건(9.4%)	426건(100%)

○ 토론회 및 온라인 의견수렴 종합분석

- 토론회 주요의견(7개)과 온라인 주요의견(9개)를 겹치는 영역 중심으로 종합

< 종합분석의견 >

토론회 주요의견	온라인 주요의견	종합의견	
사회·정서·공동체 교육 (41건, 15.6%)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공감능력 중심의 융합형 교육 (110건, 25.8%)	①마음과 창의력을 함께 키우는 교육 (151건, 22.0%)	지식 이상의 사회·정서와 공감능력을 포괄하는 공동체 중심의 융합형 교육(창의력·문제해결력)
평가 준거의 전환: 속도·정답에서 사고·과정으로 (37건, 14.1%)	정답 찾기에서 서술과 토론 중심의 평가로의 전환 (70건, 16.4%)	②정답 찾기에서 생각하는 과정 중심의 평가로 (107건, 15.5%)	평가 준거의 전환: 속도·정답 찾기에서 사고·과정과 서술·토론 중심의 평가로
기초·분별력과 올바른 AI 활용 교육 (52건, 19.8%)	AI·정보 리터러시와 비판적 사고력 함양 교육 (28건, 6.6%)	③AI를 올바르게 가려 쓰는 힘 기르기 (80건, 11.6%)	기초·분별력과 AI·정보 리터러시: 올바른 AI 활용과 비판적 사고력 함양 교육
사유 능력과 교육철학의 재정립 (31건, 11.8%)	자체적 판단력과 사유 중심 교육 (39건, 9.1%)	④스스로 생각하는 교육으로의 전환 (70건, 10.2%)	자체적 판단력과 사유 능력 중심 교육, 교육 철학의 재정립
평가·대입 체제 혁신: 절대평가와 프로젝트 학습 (37건, 14.1%)	서열화 중심에서 실무 역량 함양 중심으로의 입시제도 개편 (31건, 7.3%)	⑤입시와 평가 제도의 큰 틀 바꾸기 (68건, 9.9%)	평가·대입 체제 혁신: 절대평가·프로젝트 학습, 서열화에서 실무 역량 함양 중심으로의 입시제도 개편

- (①마음과 창의를 함께 키우는 교육) 사회·정서와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력, 그리고 교원·학부모·학생을 아우르는 교육공동체 전체의 역량을 키우자는 의견, 예술·체육 등 정서 교육과 사회·정서 교육에 관한 의견

“사고력·창의력·문제해결력·협업을 기르고
AI를 학습 도구로 쓰자”

- (②정답 찾기에서 생각하는 과정 중심의 평가로) 평가의 내용을 바꾸자는 의견, 과정 평가의 공정성 제고, 분과 과목 개혁, 구술·논술·다면평가로의 전환, 서열화된 대입 개편을 요구하는 답변

“문제를 빨리 푸는 평가에서 벗어나,
무엇을 이해하고 활용하는지 평가하자”

- (③AI 올바르게 가려 쓰는 힘 기르기) AI의 정확성을 가려낼 기초 교육과 윤리·도덕 교육, 올바른 AI 사용법 교육에 대한 의견, 디지털·정보 다루기, 프롬프트 활용, 딥페이크·환각 대응 같은 구체적 소양에 대한 의견

“AI가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거짓말도 하니
분별력을 키우는 기초교육이 필요하다”

- (④스스로 생각하는 교육으로의 전환)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고력과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기르자는 의견, 그리고 이를 받쳐줄 교육 철학과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다시 세우자는 의견

“철학적 사고와 자기 판단력을 길러주는 훈련이
교육의 핵심에 들어가야 한다”

- (⑤입시와 평가 제도의 큰 틀 바꾸기) 상대평가 폐지와 절대평가 전환, 수능의 자격시험화, 프로젝트·구술 평가 확대 등 평가와 대입의 전면 개혁 주장, 지역균형선발, 학생 주도 진학 등 제안

“서열 대신 역량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자”

< 종합의견 관련 SNS 댓글 >

- 마음과 창의를 함께 키우는 교육: “AI 시대에 맞는 디지털 역량과 함께 창의성, 인성, 협업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페이스북)
- 정답 찾기에서 과정 중심 평가로: “누구나 정답을 쉽게 찾는 AI 시대에 핵심 경쟁력은 질문하는 능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 AI를 올바르게 가려 쓰는 힘 기르기: "AI를 사용하는 능력보다 AI를 비판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길러 주는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페이스북)
- 스스로 생각하는 교육으로의 전환: "지식을 암기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이 스스로 질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키워 주는 배움이 필요합니다." (유튜브)
- 입시와 평가 제도의 큰 틀 바꾸기: "줄 세우기식 상대평가에서 학생 개개인의 역량과 성장을 중심에 두는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유튜브)

3 학습과 직업의 연결사다리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는가?

○ 국민참여위원회 토론회 결과 분석

-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 247건을 분석하여 5개의 주요의견 도출
- 학생·청년은 진로를 바꾸고 평생 배우는 문제에 대해, 교육관계자와 학부모는 학교 체계를 재편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이 많은 양상

< 국민참여위원회 토론회 주요의견 분석6) >

주요의견	학생·청년	학부모	교육관계자	일반국민	합계
①노동 시장과 평생교육에서의 AI 활용 교육	14건(35.0%)	3건(7.5%)	10건(25.0%)	13건(32.5%)	40건(100%)
②실패에 관대한 진로 탐색과 체험 확대	17건(24.3%)	15건(21.4%)	26건(37.1%)	12건(17.1%)	70건(100%)
③미래 적응력과 융합적 사고력 함양	10건(16.1%)	12건(19.4%)	22건(35.5%)	18건(29.0%)	62건(100%)
④채용 방식 변화에 따른 대학 교육방식 개선	10건(27.0%)	2건(5.4%)	20건(54.1%)	5건(13.5%)	37건(100%)
⑤개별 적성과 역량 중심의 학교 교육 설계	1건(2.6%)	10건(26.3%)	22건(57.9%)	5건(13.2%)	38건(100%)
합계	52건(21.1%)	42건(17.0%)	100건(40.5%)	53건(21.5%)	247건(100%)

○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 분석

- 온라인 의견 202건을 분석하여 5개의 주요의견 도출, 세가지 핵심질문 중 세대 간 이견이 가장 적은 양상

6) 248건 중 낱말이 3개가 안되는 짧은 응답 1건을 제외한 247건 분석

- 평생학습과 역량중심교육은 모든 연령에서 비슷하게 답변. 학습과 직업의 연결에 대해서는 평생학습 체계와 역량 인증 전환의 필요성이 세대를 넘어 폭넓게 공유되는 것으로 해석

< 온라인 의견수렴 주요의견 분석 >

주요의견	10~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합계
①평생 배우고 새로운 직업 도전을 위한 교육체제	7건(16.7%)	16건(38.1%)	10건(23.8%)	8건(19.0%)	1건(2.4%)	42건(100%)
②학위 중심에서 마이크로 역량 중심 교육	10건(18.2%)	20건(36.4%)	13건(23.6%)	7건(12.7%)	5건(9.1%)	55건(100%)
③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진로 교육	5건(13.9%)	11건(30.6%)	6건(16.7%)	9건(25.0%)	5건(13.9%)	36건(100%)
④평생학습과 연계한 실용적 직업 체험 학교교육	5건(17.2%)	5건(17.2%)	8건(27.6%)	6건(20.7%)	5건(17.2%)	29건(100%)
⑤AI 시대 인간 고유 역량 중심의 학습 재편	3건(7.5%)	8건(20.0%)	15건(37.5%)	11건(27.5%)	3건(7.5%)	40건(100%)
합계	30건(14.9%)	60건(29.7%)	52건(25.7%)	41건(20.3%)	19건(9.4%)	202건(100%)

○ 토론회 및 온라인 의견수렴 종합분석

- 토론회 주요의견(5개)과 온라인 주요의견(5개)를 겹치는 영역 중심으로 종합

< 종합분석의견 >

토론회 주요의견	온라인 주요의견	종합의견	
평생직업이 없는 미래 적응력과 융합적 사고력 함양 (62건, 25.1%)	AI 시대 인간 고유 역량 중심의 학습 재편 (40건, 19.8%)	①AI 시대에도 사람만이 지닌 힘을 키우는 학습 (102건, 22.7%)	평생직업이 없는 AI 시대의 미래 적응력·융합적 사고력과 인간 고유 역량 중심의 학습 재편
실패에 관대한 진로 탐색과 체험 확대 (70건, 28.3%)	학교 단계부터 평생학습과 연계한 실용적 직업체험교육 (29건, 14.4%)	→ ②일찍부터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는 교육 (99건, 22.0%)	실패에 관대한 진로 탐색과 학교 단계부터 평생학습과 연계한 실용적 직업 체험 확대
채용 방식 변화에 따른 대학 교육방식 개선 (37건, 15.0%)	학위 중심에서 마이크로 역량 중심 교육 (55건, 27.2%)	→ ③역량 중심 대학교육과 능력 중심의 채용 (92건, 20.5%)	AI 시대에 채용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학위 중심에서 마이크로 역량 중심으로의 대학 교육방식 개선

노동 시장과 평생교육에서의 AI 활용 교육 (40건, 16.2%)	평생 배우고 새로운 직업 도전을 지속하게 하는 교육 체제 (42건, 20.8%)	→	④평생 배우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회 (82건, 18.3%)	노동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평생 배우고 새로운 직업 도전을 지속케 하는 평생교육 체제와 AI 활용 교육
개별 적성과 역량 중심의 학교 교육 설계 (38건, 15.4%)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진로 교육 (36건, 17.8%)	→	⑤저마다의 취향과 적성을 살리는 진로교육 (74건, 16.4%)	개인의 소질·적성과 역량 중심의 진로 교육과 학교 교육 설계

- (①AI 시대에도 사람만이 지닌 힘을 키우는 학습) 끊임없는 학습에 기반한 인문학적 사고와 사람만이 가진 마음에 바탕을 둔 소통과 공동체 역량을 강조

“대인관계와 인문학적 사고가 미래 직업의 조건이다”

- (②일찍부터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는 교육) 실패해도 괜찮은 탐색과 다양한 직종 체험에 대한 요구, 한 가지 진로를 강요하는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 초·중·고 단계의 산학연계 체험·프로젝트 학습 제안.

“여러 직업을 갖는 시대인 만큼 한 진로만 고집하지 말자”

- (③역량 중심의 대학교육과 능력중심의 채용) 졸업장이 아니라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정받게 하고, 배움과 직업을 곧바로 잇자는 제안

“학위와 무관하게 뽑는 대기업 사례를 모델로 삼자”

- (④평생 배우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회) 노동시장의 빠른 변화에 발맞추어 진로를 바꾸기 용이하게 지원하는 방안, 대학 일자리센터의 개인 맞춤 지원, 방송통신대·야학을 포함한 평생교육 접근성을 요구

“필요할 때 다시 배우고 진로를 바꿀 수 있는
평생학습 체계가 필요하다”

- (⑤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진로 교육) 역량 중심 교육과정과 국가직무능력표준 연계, 학생 개인 맞춤형 통합지원 등에 대한 의견

“형식적인 진로 교육을 취향·적성 중심 교육으로 바꾸자”

< 종합의견 관련 SNS 댓글 >

- AI 시대에도 사람만이 지닌 힘을 키우는 학습: "AI를 잘 활용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생각하고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키우는 교육이 강화되길 바랍니다." (유튜브)
- 일찍부터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는 교육: "진로체험이 하루 행사로 끝나지 않고 다양한 직업을 직접 경험하는 프로젝트형 교육이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인스타그램)
- 역량 중심의 대학교육과 능력 중심의 채용: "학교와 산업 현장의 경계를 허물고, 학습이 실제 직업 역량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유연한 경로가 필요합니다." (인스타그램)
- 평생 배우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회: "한 번의 학위가 평생의 직업을 보장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새 지식을 배우는 평생 학습 체계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페이스북)
-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진로 교육: "시험 성적 중심이 아닌, 아이들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찾아 주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III

결과활용 방안

- 국가교육위원회 누리집 게시 및 국민참여위원회 공유
-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시 중요 참고자료로 활용